

풍요로움 · 즐거움 · 맛 어울린 소통 · 화합의 장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 컨셉

내달 2~5일 해돋마루 지방정원서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에서 개최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풍요로운 부안을 다정한 마실에 담아 선물이 되는 축제로 부안의 풍요로움(자원)과 즐거움(놀이), 맛(먹을거리)이 함께하는 어울림(사람)을 담아 소통과 화합하는 축제다.

올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을 컨셉트로 마실을 알리는 축제를 넘어 부안에 집중하는 축제로 개최된다.

축제 공간은 이웃마실과 놀이마실, 문화마실, 별미마실, 정원마실,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축제 프로그램은 지속 발전 프로그램과 변경 프로그램, 삭제 및 신규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된다.

이에 따라 제12회 부안마실축제를 미리 소개한다.

.....

▲부안의 다채로운 매력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끼는 이웃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이웃마실 프로그램은 부안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안을 즐길 수 있는 '이웃기웃 마을투어', 부안의 으뜸 식재료를 활용해 매년 색다른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는 '부안밥상-스타셰프 부안푸드쇼', 부안군 13개 읍면의 테마를 스토리 라인으로 구성해 미션을 해결하면서 진행되는 체험형 미션투어 '마실프렌즈 구축 대작전'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또 축제의 상징인 마실프렌즈를 각인한 골드바를 증정하는 '황금몬을 선물합니다'와 만물상회처럼 부안의 이모저모를 담은 콘텐츠형 팝업스토어 '부안팝업스토어', 손으로 만드는 추억과 마음으로 배우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안체험홍보마실' 등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신나게 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놀이마실 프로그램은 신나게 놀면서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부안의 산과 들, 바다, 노을을 테마로 한 체험형 놀이공간 '몬스터 키즈파크'는 아이들에게 자연 체험과 신체활동을 동시에 제공하며 자연 속에서 즐기는 생태 어드벤처 놀이터로 마련된다.

화려한 불거리를 제공하는 공연팀과 이웃마실의 캐릭터 인형이 모여 장관을 연출하는 '해돋마루 마실 퍼레이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 '뽕뽕마실랜드'와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마실명랑운동회', 한국인형극협회와 함께하는 '꿈꾸는 인형극장', 사방을 감싸는 물임감으로 남녀노소 모두 관람 가능한 '달빛영화극장', 지역 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느끼는 문화예술강좌 '아르페 오감극장' 등이 관객을 맞는다.

▲환호하고 공감하며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문화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문화마실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개·폐막식'을 비롯해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형 율동 동요 콘서트 '핑크퐁과 튜튼뽕의 댄스 파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지우고 잊지 못할 음악 여행을 선물하는 '마마스앤팩파스 뮤직페스티벌' 등 화려한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정원문화를 알리는 식수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또 축제기간 4일 동안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불꽃놀이·마실라페스티벌·지역예술인 공연·주민자치 시연 등 '마실 무대 프로그램'도 기대된다.

▲풍부한 부안의 맛을 새롭고 즐겁게 맛보는 별미마실



마실 알리는 축제 넘어 부안에 집중하는 축제로 열려
이웃·놀이·문화·별미·정원 등 5가지 테마로 구성
지속 발전 프로그램·신규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돼



제12회 부안마실축제 별미마실 프로그램은 부안의 다양한 맛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식업자부 간식부스와 읍면 먹거리부스, 부안 로컬 특산물 판매부스, 푸드트럭 등에서 다양한 부안의 음식들을 판매한다.

특히 부안군예술인협회와 읍면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예술인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돼 분위기와 흥을 한껏 돋을 예정이다.

또 부안 로컬푸드를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 먹는 '부안마실팝파티'도 꼭 찾아야 할 프로그램이다.

▲자연 속 낭만을 즐기는 정원마실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정원마실 프로그램은 축제 개최 장소인 부안 해돋마루 지방정원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돋마루 야간 경관과 유채꽃밭 조성을 통해 축제의 불거리를 더했으며 반려식물클리닉·럭키 메모리·그린팝업스토어·식물학교 등 식물과 사람이 머무르는 '식물정거장'도 이색적이다.

특히 식물정거장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보테니컬 라이프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다.

또 부안의 자연과 생활 소리를 담아 관광객들이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소리정원'도 상시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